

부처님 법 만큼이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서로 믿음이 없으면 화합 할 수 없습니다. - 가사원 도편수 무상 스님



제852호 2011년 9월 7일 수요일 (음력 8월 10일 · 불기 2555년 · 주간)

교회 세울 땅은 많은데 절 지을 곳 없다



여름 끝에 날아와 앉은 가을 연제부턴가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 8월 29일 남원 실상사 연못에 연꽃이 지고 난 연밥 위로 고추잠자리가 날아와 앉았다. 영원할 것만 같던 여름이 잠자리 날갯짓 한 번에 가을로 가을로 밀려간다. 연못에 날아든 잠자리처럼 가을이 날아들고 있다. 박재완 기자

불교미래사회연구·무차회 조사·발표... 수도권 포교 상황 심각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종교용지 중 불교는 단 1필지도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뉴타운 개발에서도 존치시설이 전혀 없어 수도권 포교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퇴후)와 조계종 중앙종회 정책모임 무차회(회장 일관)는 8월 30일 템플스테이 회관에서 '수도권 포교 공동화의 현황과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소와 무차회는 각 지자체 및 LH, SH공사가 제공한 수도권 종교용지 공급 데이터를 서울·경기 뉴타운, 수도권 신도시·택지개발지구의 3파트로 분류해 분석했다. 조사 결과 서울과 수도권 모두에서 개신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불교의 종교용지 점유율은 미약한 수준이었다.

서울지역 뉴타운 종교용지 전체면적 가운데 개신교가 69%를 차지한 데 비해 불교는 30% 수준으로 두 배 이상의 격차가 벌어져 있다. 이중 개발 전부터 위치하고 있었던 '존치'결정을 제외한 신규 진출만 살펴보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신규 진출의 경우 개신교는 79%인 반면 불교는 21%로 낮아진다.

신규공급 부지 중에서도 포교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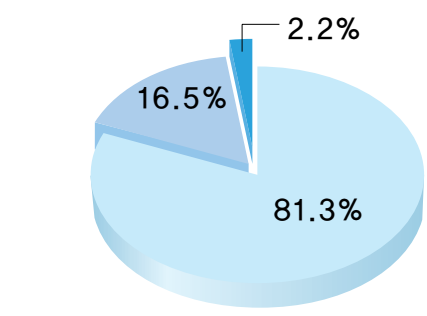
신축이 가능한 최소면적 165㎡(50평)에 못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개신교는 81.5%, 불교는 18.5%로 격차가 크다.

이런 상황은 경기 뉴타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종교용지 점유 현황 조사가 가능한 13개 경기도 뉴타운 사업지구 중 개신교는 72.2%, 천주교 17.7%, 기타 종교 6.3%로 나타났다. 반면 불교는 한국SGI, 천도교, 영생교보다 낮은 3.8%에 그쳤다. 더구나 불교는 경기도 뉴타운 전체 지역 중 존치시설로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는 서울과 수도권 중 뉴타운 사업을 제외한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종교용지를 전혀 분양받지 못했다.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192필지 중 개신교는 81.3%, 천주교는 16.5%를 공급 받았다.

연구소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포교거점사찰 설립과 사찰토지처분금 회계 독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토지처분금은 2000억원 규모이며 종단 적립 납부금은 190억 규모다. 그러나 이 기금은 신규 종교용지 매입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시설특별회계 수입으로 편입돼 종단의 여러 사업에 사용됐다.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종교용지의 종교별 점유율



개신교 절대 다수 분양
서울 뉴타운서 2배 격차

포교거점사찰 설립 필요
대출 상품 등 개선안 시급

연구소는 또 지방교구본사의 수도권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찰토지처분금 중 종단에 납부하는 일부(공찰 20%, 사설사암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교구본사가 적립하는데, 연구소는 이를 통해 교구본사 적립금을 수도권 포교 거점 사찰 건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찰토지적립금을 보유하고 수도권 진출에 의지가 있는 교구본사가 구체적 계획서를 중앙종단에 제출하면 종단에서는 복수의 교구본사가 제출한 사찰 설립안을 심의해 전략적 입지에 가장 적합한 사찰이 들어설 수 있도록 검토한다. 이후 선정된

본사에 사찰 설립을 위한 소요 재원의 일정 비율을 종단 적립 사찰토지처분금 계정으로 지급한다. 또한 교구본사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종단은 거점 사찰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 일부를 환수한다.

사회법에서도 존치 지정된 종교 시설에 종교용지 우선 공급, 신규 분양 용지의 2분의 1은 종교인구의 각 종교별 신도시 구성 비율 기준으로 공급대상자 선정, 종교용지의 용지부담금완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단 보증을 통한 금융권 대출 상품 개발도 제안했다.

박기범 기자

추석 행사 풍성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다양한 불교계 행사들이 눈길을 끈다. 복지기관 및 사찰들은 추석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9월 12일 서울 조계사, 봉은사, 도선사, 불광사 등 도심 주요 사찰과 수원 용주사 등 전국 교구본사에서는 일제히 추석 불공기도 및 합동차례가 진행된다. 조계사 등 대부분의 사찰은 오전 7·9시, 오후 1시 3회에 걸쳐 차례를 진행한다.

가정에서의 불교식 차례를 보급하기 위한 시연회도 잇따라 열렸다. 5일 조계사에서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이 주관하는 '불교식 명절 차례 시연회'가 진행됐으며 7일 BBS불교방송 법당에서는 태고종 열린선원(선원장 범한)이 주관하는 '추석명절 차례시연회'가 진행됐다.

또한 템플스테이도 마련된다. 해남 미항사(주지 금강)와 충남 마곡사(주지 월해), 경주 굴곡사(주지 적운) 등 전국 29개 사찰은 10~13일 추석을 맞아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서울 신정동 국제선센터도 12일 합동차례와 특별 수행프로그램을 개최하며 이에 앞서 4일에는 명절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한 시사회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12면부터**

노덕현, 천진명 기자

생활 속 참선수행 프로그램
한마음공생실천과정

나로부러의 시각

내 마음에 엉성한 보배가 있음을 믿고
그 자리에 일체 경계를 놓아 나가는 과정을 통해
마음 속 보배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마음공부입니다.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은 www.hansu.org 참조

“전통과 현대문화 조화·발전시킬 터”

불자 최광식 문화재청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불자 최광식 문화재청장(사진)이 내정됐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8월 31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교 유교 개신교 등 여러 종교가 한국에서 발전·공존하는 것은 한국문화의 특색”이라며 “법고창신(法古創新)하는 문화행정을 통해 문화부지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다양한 분야 간 융·복합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콘텐츠산업 진흥 예산을 선진국 수준인 정부 예산의 2%까지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광식 내정자는 지난해 11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G20서울정상회의의 만찬회를 융·복합적인 문화

의 예로 들며, “국제적인 행사에 한국 전통문화를 접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상회의의 주 의제는 경제·금융 등이었으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만찬회를 통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각국의 정상들은 자연스럽게 한국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

최 내정자는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접목, 중앙과 지방의 조화로운 문화발전과 문화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광식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3년간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재임한데 이어 지난 2월 문화재청장으로, 이번에 문화부장으로 내정됐다. 최 내정자가 고려대박물관장 시절 문화예술 최고위과정을



개선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1기 수강생으로 등록하면서 각별한 인연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재임 때는 ‘고려불화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고, 불국사 석가탑 관련 유물을 불교중앙박물관이 소장·관리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조용섭 기자**

“논의해 봅시다” 화쟁위, 9월 중 토론회

‘21세기 아쇼카 선언’을 발표했던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범)가 9월 중 대중공사를 열고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화쟁위는 이번 대중공사에서 활발한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가진 토론자들을 물색 중이다. 화쟁위 관계자는 “토론을 통해 선언문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농인향당
농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합물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민서 02-3663-6777 www.milwa.com

852호 CONTENTS

- 이철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에 불교계 반발 2
- 템플스테이 사찰관리 엄격해진다 2
- 불원사 일운 스님 반박 2
- 불교중흥 8월 대토론회 3
- 현장속으로 5
- 제9회 불교교리 경시대회 5
- 추석특집 12·13·14·15
- 불교식 추석보내기 15

신상품
LED인등·전구
천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2012년 불교달력 특별할인(8월 1일~9월 30일) 판매

삼보불교카렌다에서는 「2012년 불교카렌다」를 특별할인 기간(8월 1일~9월 30일 까지)에 주문하시면 고급스럽고, 질 높은 50여종의 카렌다를 가장 저렴하고 신속하게 보급 해 드립니다.

※ 다양한 종류(벽걸이, 차걸이비닐캘, 미니스프링, 미니수첩, 탁상, 법요집책자, 사경시리즈, 각종 불교용품 등)의 카렌다 내용과 이미지는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www.samboca.com\)](http://www.samboca.com)에서 확인 또는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카드록**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불교카렌다 제작 전문 **삼보불교카렌다** 대표전화: 031)732-9905 Fax: 031)732-897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7-13 중앙인더스피아 B동 308호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통합검색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하세요